

제 207 호

연중 제 32 주일

1976. 11. 7.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가난한 마음

김 기 수 신부

오늘 복음(마르코 12, 38-44)은 렘톤 2개, 골 동전 한 닢 값어치의 돈을 헌금함에 넣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행위를 특별히 소개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조그마한 봉헌 행위는 산상수훈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는 행복합니다” 라는 참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사람은 인간성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땅위의 재산을 필요로 합니다. 무일푼의 사람이 어찌 자기를 드높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일푼의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 다. 마음이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가 가난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목숨도 재산도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정신의 힘, 마음의 풍부함, 재능, 체력마저도 그러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가난한 이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고 배우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메워진 사람들 중에도 역시 가난한 이도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가난한 이는 마음이 가난한 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마태오 19, 23)고 하신 예수님의 깨우침은 다만 부자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물질적 욕구에만 집착되어 있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든 부자이든 하느님 나라를 마음에 받아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경에 놓여 있어도 빵만이 아니라 마음의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배고팠을때 돌을 빵으로 바꾸지도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내려오시지도 않았습니 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고 철저히 남을 위해 봉사하신 분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조차 없습니다.”(마태오 8, 20)

세상에는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마음속 뿐 아니라 생활상에 실행해 온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와 같은 훌륭한 행위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이야말로 예수님의 참가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소개되는 가난한 과부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헌금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황등 천주교회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죽음의 신비

— 11월은 위령 성월 —

죽음 앞에서 인간 운명의 수수께끼는 절정에 달한다. 인간은 아픔과 꺼져가는 육체의 파멸을 피로와할 뿐 아니라 영원한 소멸을 두려워한다. 인간 실존의 완전한 파멸과 결정적 끝장을 싫어하고 거부할 때 마음의 본능에 따른 이 판단은 옳은 것이다.

인간이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영원의 씨는 순수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죽음에 저항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다. 기술의 모든 노력이 제아무리 유익하다 해도 인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 생물학적 수명의 연장은 마음 속 깊이 뿌리박힌 고차적 생명에 대한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어떠한 상상도 죽음 앞에서는 맥없어지지만 하느님의 계시를 들은 교회는 인간이 지상 불행의 한계를 넘어서 행복한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께 창조되었음을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인간이 범피치 않았던들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며, 죄로 잃었던 구원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의 은덕으로 인간이 다시 회복할제 죽음은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가르친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성 전체로써 당신과 영원히 결합하여 당신 불멸의 생명을 나누어 받도록 인간을 이미 부르셨고 거듭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승리는 그리스도 친히 당신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거두신 승리다. 따라서 확고한 논증에 바탕을 둔 신앙은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며 미래 운명에 관한 그 죽음의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 그와 동시에 신앙은 또한 죽음이 먼저 앗아간 형제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결합할 가능성을 제공하며 그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준다.
(現代 世界의 可敎 憲章 18)

숲 정 이 산책



11월은 위령의 달
당신도 꼭 죽습니다

하나의 태양 아래

정 승 현 신부

직행버스나 고속버스안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완행버스안에서는 가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게된다.
 승무원이 승객을 실는데 이전 정원도 없고 운행시간도
 없는지 실고 또 실는다. 장날에는 더욱 비참하다. 웬 집
 은 또 그렇게 많은지..... 승객들의 자증은 점점 고조된
 다. 나중에는 결국 험악한 불평이 되고 말지만 기사나
 승무원은 아랑곳 없다.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도 신세타
 령이 나오기도 한다.

—똑같은 요금 주고 탔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서 편히
 가고 어떤 늙은 서서 이 고생이람.

—어떤 사람 팔자좋아 자가용 끌리고 어떤 늙은 버스
 도 제대로 타고다니기 어려우고.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치 같은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탔
 는데도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같은 인간생명을 하느님께로 받았는
 데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있다는데에 있
 지 않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서로 취하는 태도에 있
 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못가진 자와 함께 나누어야 한
 다. 그렇지 못할 때 싸움이 시작되고 주님의 뜻에 어긋
 나는 행위들이 난무하게 된다. 가진 자가 자신의 필요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못가진자의 빈곤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로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평등의
 은총이 거부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 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
 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가? (마태 5, 45)

「하나의 태양아래 착한이와 나쁜이
 하나의 달아래 가난한이와 부자
 아버지의 자비여
 이들을 한 자리에
 생명과 시간 주시고 함께 있게 하시네.
 한 날 한 마을에 기쁜이와 슬픈이
 하나의 도시에 오노이와 가노이
 아버지의 자비여
 이들을 한 자리에」

—하나의 태양아래—(Spirituals 제3집에서 발췌)
 인권은 모든 인류가족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 평등의 은총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자 유엔총회 결의에 의해 채택되어 선포된 <세계 인권선
 언>에는 다음과 같이 이 평등의 은총이 표현되어 있다.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

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은 자유
 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제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
 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없
 이 동등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10조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자주적이요, 불편부
 당(不偏不黨)한 공개법정앞에서 하등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받을 자격을 가진다. (세계의 인권선언, 新東亞
 1975년 1월호 별책부록 pp.86-89에서 발췌. 밑줄은 발
 췌자가 그었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 똑같은 능력과 역량
 똑같은 소유, 똑같은 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도 아니
 다.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없이 사랑이 실천되어
 야 한다는 말이다. 병이 들었어도 ‘없어서’ 치료받지 못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서는 안된다. ‘없어서’ 배고
 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서는 안된다.
 ‘없어서’ 배움의 길이 막혀서는 안된다. ‘없어서’ 당연
 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없다’는 것은 재물뿐 아니라 배경, 온전한 신체, 타
 고난 능력, 기회등을 다 열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교구에 정의평화위원회(Justice and Peace Commission)
 가 설립되었다. 그안에 인권분과위원회가 있어 인권을
 위해 일한다. 하느님 아버지의 평등한 은총이 거부당하
 는 일이 없도록 일하는 것이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필요할 때는 수시로 사제에 종사
 하는 문들의 의견을 들어 일한다.

올해에는 두가지 일에 주력할 것이다.

하나는 신자들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밝
 히고 이를 해결하는 일이다. 본당 공동체는 적어도 본당
 에 속한 신자들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
 도록 보살펴야 하겠지만 본당공동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위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권을 위해 일하다가 옥에 갇힌 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소위 ‘양식의 수인(囚人)’들을 돕
 는 일이다. 그들을 위해 계속적이고 성과있는 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그들을 위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
 력할 것이다. 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지부와도 협력할 것이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교형자매들의
 기도와 성원을 요청한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
 히 청한다. <教區 正義 平和 委 人權 分科 委員長>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 일 양 복 점

(舊 맨디 양복점)

전 태 권(스테파노)

□오거리←→삼남극장공간(교사동 1가 175번지)
 전화 ⑨ 9 4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천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도로 나무아미타불

(南無阿彌陀佛)

박 흥 기(요셉)

옛날 어떤사람이 당나귀를 끌고 얼음이 언 강을 건너 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얼음의 두께가 미심쩍어 불력(佛力)에 의지하여 건너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외치면서 무사히 강 저편까지 건너갔다. 그러나 다왔다는 때쯤으로 "무슨 나무아미타불이냐?" 하고 강 저편을 되돌아 보니 아빨사! 당나귀는 그대로 두고 자기만 건너 왔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원래의 그 쪽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부처님을 모독한 사실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도로 나무아미타불, 도로 나무아미타불" 했단다.

이 이야기는 그냥 웃어 지나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 주위에 많고, 더우기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곧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졌을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되었다는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비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 관념이라고 볼 수 있을진대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주 예수께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의 경계를 지나시는 길에 나병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었지만 그 중 이교인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 그 때 예수께서는 "열 사람이 깨끗하여 졌는데 아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밖에 없습니까?"(루카 17: 11~19) 하고 한탄하셨다.

이 성서 내용은 바로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고 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은 우리 신자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며 본분이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이며 이기적인것 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온 세상 구석 구석 까지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며 기도는 항상 그리고 간단없이 해야 되겠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같은 인간끼리라도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사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을 속이며 배은행동을 신자된 우리가 할수가 있는가? 불행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도로 나무아미타불> 하는 신자일 것이다.
<복자 성당 사도회 부회장>

* 반짝 반짝 *

전주 교도소에 반짝 반짝 꼬마 전구에 불이 켜졌다. 꼬마 전구에 두 손을 대니 훤훤하기까지 하다.

지난 10월 29일 전주 성심 여중 고에서 700권의 책과 사과 10상자, 전주 해성 중 고등 학교에서 1,300권의 책을 전주 교도소에 전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그들의 인 가슴을 찌름은 녹여 준 것 같다.

결 (추) 혼

김 정생 씨 아우 주생 군
신 용선 씨 따님 순옥 양

일시 : 11월 11일(목) 11시
장소 : 전동 천주 교회
주례 : 김 환철 신부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원장 김 창 호(클레멘스)

□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520번지
전화 4134
(남원 천주교회로 연락해도 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 ★ 한국운수 보일러와
 - ★ 금화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 책임지고
교형 여러분의 집을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전주시 전동 3가 매곡교 사거리
전화 2-2143
주 원 배 <실베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팝니다

씨느 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전화 ☎ 6219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 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 민 주<가타리나>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 454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공지사항※

1.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 (8일<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2. 전주지구 울뜨레아 (13일<토> 오후 7시반, 중앙성당)
전주 시내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3. 다음 주일은 평신도의 날
4. 대학생 연합회 체육대회(11월 7일 오전 9시부터, 해성중고등학교) 회비 : 500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이대권
보좌 신부 이종원
③3874 사도 회장 이상용

(북자) 전화 ⑤232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방지거 삼회 : 오늘 오후 2시 30분
3. 합동 위령미사 : 오늘 오후 3시 <교회 묘지>
4. 묘지 관리 위원회 임원회 : 11월 14일 오후 3시
※ 임원님들께서는 7일 미사후 현지 답사를 하오니 교회 묘지에 전원 참석 바랍니다.
5. 꾸리아 월례회 : 다음주 2시
6. 울뜨레아 월례회 : 13일 7시 30분 <회의실>

1. 교우회 회합 : 10일 (5, 6반) -고사동, 박 아오스님 씨 맥, 11일 <9, 10반> -태평동, 허 레례사씨 맥, 12일 <11, 12반> -태평, 진북동 이 예로니모씨 맥,
2. 「파티마의 기적」 영화 상영 : 8일, 9일 <양일간> 저녁 8시
3. 성경 연구 :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 각 신심단체 회원 및 뜻있는 교우
4. □본당 피정 : 19일 오전 9시~오후 4시
◎ 부터회원 전원과 각 신심단체 회원, L.M단원
5. 사도회 상임 위원회 : 오늘 저녁 7시 30분
◎ 각 분과 위원님의 참석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사도 회장 박종용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준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에 있음
각 분과 위원장님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2. 신음조합 월례회 : 다음주 공식 미사 후에 있음
3. 반상회 일정 안내 :
<중노1가> 봉숭아반 (오모니가) 11월 8일 (월)
<인후동> 베드로반 (전베드로) 11월 9일 (화)
" 가잠반 (최마리아) 11월 10일 (수)
" 농원반 (김비리사) 11월 12일 (금)
" 요셉반 (정바울라) 11월 11일 (목)
4. 신년도의 교무금을 신입합니다.
현재 본당 사무실에서 교무금을 신입받고 있사오니 교형 자매 여러분은 빠짐없이 신입하시기 바랍니다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축하합니다...지난주일 결집자 149명!
3. 10월중 면접자 총 301명 -빠지신 분은 추후 2차 면접에 협조해 주세요
4. 첫 영성제자 특별교리 : 13일~20일까지 <오후 5시~6시 까지>
5. 도장 공사 헌금 신입자 (제 11반) : 김평수, 최병화 (각 1만원), 박기훈 (7천원), 이귀순 (5천원), 김문수, 김완철, 정영조, 황의중 (각 3천원), 노희순, 우점덕 은성대, 이재덕 (각 2천원), 송단성, 김병화, 이익순 장금례, 유헤미, 박성여, 김치덕 (각 1천원)
6. 미사시간 변경 : 저녁 미사 8시-7시반으로
7. 반회합 : 9일 (화) -1반, 10일 (수) -2반, 11일 (목) -3반, 12일 (금) -4반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종환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유석중

1. 사도회 확대회의 : 오늘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고문, 공소회장, 구역장, 반장님은 전원 참석 바람
2. 가정방문 및 반미사 : 덕진동 2반-11월 9일 (화)
3. □파티마의 성모 영화 상영 : 10일 (수) 오후 7시
※ 회비-100원, 장소-덕진성당.
◎ 잊지마시고 꼭 관람하세요!.....
4. 불현금(교무금)을 빠른 시일내에 사도회에 신입바람
5. 76년(작년분) 교무금을 속히 완납 바랍니다.
6. 「성당 신축 성금」 : 한 가정도 빠짐없이 신입 합시다
지난주 신입-최덕례, 김우자(각 10만원), 이순례 <2만원> 장복례, 박금순, 황용남(각 1만원), 황동 본당 장영호(5천원), 계 255,000원, 누계 4,786,500원 ★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도회 : 저녁 미사후
2. 성화회 : 10시 미사후
3. 유아 세례 : 2시 미사중
4. 평신도 묵상회 : 13일 (토) 오후 2시~14일 (일) 오후 4시
5. 성모 공개 Cell 10주년 : 14일 오후 2시
6. 교무금 신입은? 내가 끝치.....
7. 대학생회 : 토요일 저녁 미사후 8시
8. 77년도 전동 천주교회 월력-신자들의 상호와 전화 번호를 연락 바랍니다.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신태인유정	창제안류	6,440원	제 3 지구	주현동 창인동 황	다음 주 대의원회, 부인회	82,705원
		사도회 임원, 구역장 개편	원			주일학교 소풍	30,500원
		평일 미사시간 변경	5,175원			★ 축! 밀알회 발족	7,495원
제 2 지구	대윤명중동열	다음주 평신도의 날 단합대회	5,715원	제 4 지구	중노송동 덕진사학동전	사도회 월례회, 방지거삼회	87,205원
		사도회 월례회, 북자회	20,590원			사도회 월례회	36,245원
		사도회, 안나회	8,610원			사도회 확대회의	18,195원
		사도회, 성심회, 성모회	49,76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34,501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부녀회	30,675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사도회 월례회	15,430원
		사도회, 요셉회, 사도회 상임 위원회	25,705원			정원수 이식 작업	7,680원
		사도회 상임 위원회	14,740원			판공 시작	10,495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월례회	7,431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임	「음악의 밤」 개최	17,895원
		상임 위원회 월례회	19,010원			가정 방문 및 공소 방문	4,825원
제 3 지구	고금여삼	사도회, 선교위원회	13,570원				